

김소월 일본어 시 연구*

- 「잠 못 드는 태양」 과 「무제 18번」 을 중심으로-

하야시 요코*

|| 차례 ||

1. 서언
2. 「잠 못 드는 태양」 고찰
3. 「무제 18번」 고찰
4. 결어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김소월의 일본어 시 「잠 못 드는 태양(このねむらざるひ)」 과 「무제 18번」 을 다루었다. 전자의 시는 바이런의 영어 시를 그대로 적어놓고 그 다음으로 일본어로 번역한 시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양 시인의 외국어 시를 또 다른 외국어인 일본어로 번역한 시도는 일본 시인들이 『신체시초』를 통해 근대시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서 보이는 방법과 유사하다. 김소월의 새로운 도전으로 탄생한 일본어 번역시 및 창작시는 한국 근대시단 확립시기의 위대한 실험정신의 실천으로 크게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무제 18번」은 그 당시 일본에서 하기와라 사쿠타로가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고 독자적인 시 세계를 전개했듯이 소월의 경우에도 어둡고 칙칙한 감각적인 시의 이미지는 당시 한국 시단에서도 그만의 특유의 세계이었을 것이다. 김소월의 시의 특징을 잘 살펴 보기 위해 사쿠타로의 이미지와 유사한 작품과 비교, 고찰했다.

주제어 : 김소월, 일본어 시, 바이런, 번역, 실험정신, 하기와라 사쿠타로, 보들레르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인덕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덕대학교 교수. bonita8@hanmail.net

1. 서언

김소월의 한국어 시 연구는 수없이 많은 것에 비해 일본어 시는 이제까지 거의 연구된 적이 없다. 유일하게 소월의 일본어 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코노 에이지(鴻野映二)의 「소월 · 일본어 작품 유형 연구」¹⁾가 있는데, 코노는 그 연구에서 소월의 일본어 시의 외적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형태별로 분류한 후 주로 時調와 관련을 시켜 논의하고 있다.

코노는 이 연구에서 소월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활동 시기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작품의 장르나 작품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어 작품 총 7편을 그 유형을 중심으로 정형시, 정형시와 비(非)정형시의 중간, 비정형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했다.

소월의 일본어 시는 1977년 『문학사상』에 번역되어 소개되었지만, 오자나 탈자 등이 많고, 그 후 연구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판독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그의 일본어 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형식면은 물론 내용면 등까지를 포함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코노의 연구에 의하면 소월의 일본어 정형시는 7.5조를 기조로 하면서도 정확히 그것이 지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불규칙성을 포함하는데, 코노는 그 이유를 소월의 자유로운 정신으로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시조의 유연한 태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정형시와 비정형시의 중간형태의 시에서는 의도적으로 정형을 깨뜨린 흔적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 사회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자유시에서는 生의 負的 측면으로 독자들을 이끄는 시어가 쓰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소월의 허무 의식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 코노 에이지, 「소월 · 일본어 작품 유형연구」, 국제대학교 논문집vol.10, 1982.

한편 사나다 히로코는 「한국근대시인의 일본어창작에 얽힌 문제들」²⁾에서 주요한, 황석우, 정지용과 함께 김소월의 작품을 다루었다. 사나다는 한국어 구어자유시가 확립되려는 무렵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어 시를 쓴 것에 대해 ‘그때 한국어의 구어문장 자체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외국문학의 세례를 받은 문학청년들은 최남선 류의 신체시로는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고 한국어 구어자유시라는 것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니 외국작품을 배우고 외국어로 창작을 시도하는 일은 그들이 한국근대시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을 것이다.³⁾

사나다는 위와 같이 한국어 구어자유시가 확립하려는 무렵에 한국 근대시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어 시를 쓴 일에 관해 당시 한국어 구어문장이 미성숙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로의 창작이 한국 근대시를 성숙 단계에 이끌어갈 방법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나다는 이 논문에서 김소월의 일본어 시에만 ‘동반자살’의 이미지가 보이는 점, 벌레, 피, 죽음, 유령 등의 이미지 사용에 보들레르, 베를레르 등의 영향이 보이는 점, 일본어 작품의 어조나 멸망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아름답게 노래한 부분은 미키 로후(三木露風)⁴⁾를 연상케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본고는 필자가 소월 일본어 시를 다루는 첫 번째 논문으로 「잠 못 드는 태양」과 「무제 18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잠 못 드는 태양」 고찰

2) 사나다 히로코, 「한국근대시인의 일본어창작에 얽힌 문제들」, 2007.07 ‘제1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요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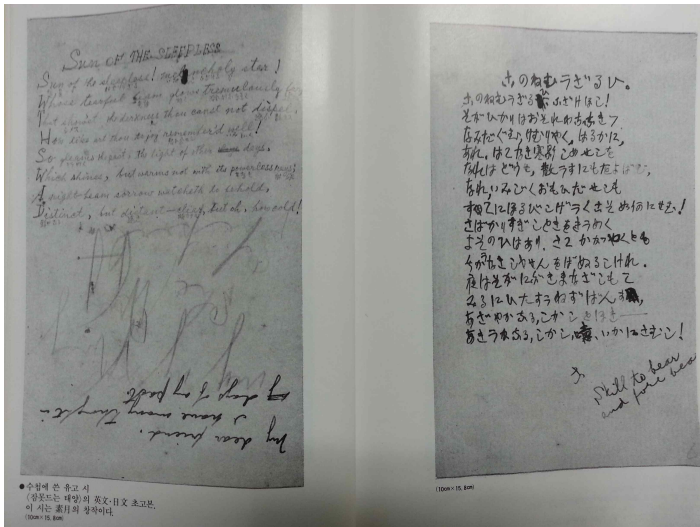
3) 사나다 히로코 위 논문 p.1

4) 三木露風(1889~1964)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시인, 동요작가. 젊을 때는 상징파 시인으로 활동했다.

먼저 창작시로 알려져 왔던 「잠 못 드는 태양」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 시는 김소월이 수첩에 쓴 유고시 형태로 발굴되었다. 소월은 같은 수첩에 총 7편의 일본어 시를 적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잠 못 드는 태양(このねむらざるひ)」이다. 이 시에 대해서 김종옥은 소월이 먼저 영어로 「Sun Of The Sleepless」를 창작한 후 이 영어 시를 일본어로 옮겼고 이것이 「このねむらざるひ」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시는 김소월의 창작시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여기서는 이 시를 살펴보면서 소월의 그 당시 창작활동에 대해 내적, 외적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1977년의 「잠 못 드는 太陽」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소개된 한국어로 번역된 시를 참조하면서 이 시의 내용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이 잠 못 드는 太陽아! 우울한 별아!



5) 김종옥 편, 『원본 소월 전집(하)』 흥성사, 1982 앞부분 유고 영인본 20-21면,

그 빛은 두려움으로 떨면서
 눈물지으며 연기로 타오르고 저 멀리서
 저 끝없는 차가운 그림자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어차피 흠어버려 좇을지라도
 그 바닥에 이르지 못하니
 하여 못 견디게 그리울지라도
 이미 멸망해 타없어질 것을 어찌하라
 찬란한 빛으로 한때 빛나는 다른 나날들이 있을지라도
 힘 없는 斜陽을 적실 뿐이로다.
 밤은 흐릿한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며 잠 못 들어
 鮮명한 그러나 머나먼
 뚜렷한 그러나 머나먼
 鮮명한 그러나 이 얼마나 추운 곳인가!

(1977년 『문학사상』 11호 게재)

『문학사상』 지(誌)에 실린 이 한국어 역의 시는 영어의 시를 기준으로 번역되었는지 일본어 시를 기준으로 옮겨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원래 시의 특징을 잘 살려 낸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영인본에서 영어 시 부분을 보면 영어 문장 밑에 군데군데 일본어 표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김소월이 먼저 영어 시를 적은 다음 그 시를 다시 일본어로 옮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종옥은 이 영어 시를 소월의 창작 시로 보았는데, 사실 이 시는 바이런⁶⁾의 시라는 것이 이 연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⁷⁾

「잠 못 드는 태양」의 원시는 「달에게(月に寄せて)」라는 바이런의 시이며, 이 시는 처음부터 가사로 쓰여진 것으로 『히브리 선율(Hebrew Melodies)』이라는, 1815년에 간행된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⁸⁾ 1849년에 칼 율리우스 켈너(Korner, Karl Julius)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슈만(Robert

6) 조지 고든 바이런(George Gordon Lord Byron, 1788~1824)은 영국의 시인. 존 키츠, 퍼시 비시 셸리와 함께 낭만주의 문학을 선도했다.

7) 영어 시 본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바이런의 시임을 확인했다.

8) 필자가 2013년 4월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바 있다.

Alexander Schumann)이 곡을 붙여 가곡으로 발표한 작품으로, 슈만의 이 작품은 슬픔이 가득 담긴 조용한 곡으로 그 당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김소월이 이 바이런의 영어 시를 어디서 접하게 되었는지 확실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소월이 이 시를 번역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1920년 쯤 일본과 한국 시단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소월이 이 시를 번역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서구의 시는 원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낯선 문화 산물이었는데 세계적 풍조에 따라 19세기 후반부터 유입되기 시작되면서 양국 문단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서구에서 새로운 문물이 밀려나오면서 시의 경우도 새로운 사상이나 감정을 담기 위한 형식을 새로이 갖출 필요성이 생겼다.

일본에서는 1882년 『신체시초』가 발간된 이후부터 그런 동향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집의 작품은 서구시의 영향을 받은 낭만적인 성격의 것이 많았다. 영어 시의 번역이 많고 7.5조의 정형시가 대부분이어서 근대적 감정이 풍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으로 1889년 모리 오가이(森鷗外)는 『모습(於母影)』 9)을 펴냈다. 영국, 독일의 시를 오가이가 번역하였는데 그 세련된 표현이 당시 젊은 시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고 그 후 낭만시가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했다. 이밖에 서구의 시를 번역해서 소개한 유명한 업적으로 우에다 빈(上田 敏)의 『해조음(海潮音, 1905)』 10), 나가이 카후(永井 荷風) 외의 『산호집(珊瑚集, 1913)』 11) 등이 있는데 나중에 언급하지만 소월의 번역 시에서는 그들의 작품으로부터의 영향으로 보이는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1908년에는 한국 최초의 잡지 『소년』 12)이 발간되었다. 그 첫머리에는 7행 6연으로 이루어진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가 실렸다. 이 시는 바이런의 「대양」이라는 시를 모방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한국 최초의 신체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최남선은 이 잡지에 3년에 걸쳐서 총 9개의 번역시를 게재했는데 제3년 제3호에 실린 「해적가」와 제3년 제6호의 「대양」은 바이런의 시를 번역한 것이다. 이들 번역시는 주로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근대시단에 본격적으로 서양 시가 소개되는 데에는 『태서문예신보』

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20년대 초 한국시단은 주로 프랑스 상징파의 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김소월이 1920년에 바이런의 영어 시를 일본어로 번역했던 것에 주목한다. 위에서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의 번역 시를 중심으로 한 문단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보았는데, 그가 어떤 경위로 바이런의 시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왜 일본어로 번역하게 되었는지는 조금 더 바이런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시 작품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김소월의 일본어 시 창작 활동의 내용과 의의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1889년 모리 오가이는 『모습』¹³⁾에서 셰익스피어나 괴테 등과 함께 바이런의 시를 번역했다. 오가이는 장학생으로 독일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하이네가 번역한 바이런의 시에 감명을 받아 일본어와 한시로 번역하여 『모습』



13) 모리 오가이는 이 『모습』을 『미니와집(水沫集)』에 재록할 때 그 서문에서 아무런 방침도 순서도 없이 채택하여 동인들이 밤샘 작업을 통해 이 시집을 엮은 것을 회상하고 있다.

에 실었다.

모리 오가이는 「Childe Harold's Pilgrimage」¹⁴⁾에서 차일드가 고국을 떠나면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제1장 2절을 「잘 자렴(いねよかし)」¹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1에서 10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이다. 여기서는 이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1 부분을 인용한다.

그 1

오늘 아침 떠나온 고향은
파란 대해에 숨어버렸구나
밤 폭풍이 불어 노가 삐걱거리니
놀라서 날아가는 물떼새들이여
파도에 가려지는 저녁 햇살을
쫓아가며 배가 달려가네
남겨진 햇살도 사라져가며
우리 고향도 잠이 드네¹⁶⁾

14)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는 4장으로 되어 있다. 전반 2장은 1812년에 출간되어 일약 시인 바이런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제3장은 1816년, 제4장은 1818년에 간행되었다. 주인공 차일드에 자신을 투영해 권태감, 고독, 그리고 방랑의 여행을 이야기했다.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 저주 받은 천사로서의 ‘사탄=숙명적 남자’상을 만들어냈다.

15) 이 시 번역은 자료에 따라서는 오치아이 나오후미(落合直文)로 되어 있다.

16) 이토 신키치(伊藤信吉) 외 편집, 『일본의 시가28 역시집』, 중앙공론사, 1969. 5-6면.

その一

けさたちいでし故里は
青海原にかくれけり
夜嵐ふきて臆きしれば
おどろきてたつ村千どり
波にかくるゝ夕日影
逐ひつゝはしる舟のあし
のこる日影もわかえゆけ

오늘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표현된 풍경이 아주 낭만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큰 바다가 있고 폭풍에 놀라 날아가는 새들이나 파도의 움직임, 배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양이 사라져가며 고향에게 밤 인사를 전하는 시의 화자는 그 자체가 낭만에 젖어 있다.

『모습』에는 영국이나 독일의 시, 희곡, 설화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나 한 절을 의역한 단가나 중국 시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 등 총 1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신체시초』에서는 작업자로 가담한 일본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시의 다양한 실상을 접하여 놀라워하고 그 새로움을 일본의 시형이나 시법에 적용해서 혁신에 도전했다. 문학적인 표현 면에서 미비한 점도 많았으나 『신체시초』 발간 후 수년이 지나 간행된 『모습』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제외하여 운율이나 표현 등이 보다 세련되고 일본근대시의 탄생을 고하는 시집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신체시가 평상적 구어를 지향하는데 반해 이 시집에서는 전통적 아어(雅語는 세련된 아름다운 언어를 의미하지만 주로 일본 고전 문학에서 사용되는 고대의 말을 가리킨다)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혁신의 시도로는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한국의 경우 최남선이 『소년』 지 제3 권 3호와 제3권 6호에 바이런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 모리 오가이가 번역한 「Childe Harold's Pilgrimage」에서 다른 부분이 발췌되어 번역되어 있다.¹⁷⁾ 정한모는 「대양」은 모리 오가이가 번역한 「いねよかし」와 같은 「Childe Harold's Pilgrimage」 중에서 다른 부분을 번역한 것이지만 같은 바이런의 작품인데도 다른 취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당시의 한국과 일본의 근대시에 대한 자각의 거리로부터 생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일본의 근대시는 서정시로서의 근대적 특성을 갖추어 가고 있었지만, 최남선은 그러한 문

わが故郷もいねよかし

17) 정한모는 『한국 현대시문학사』(일지사, 1982)에서 9편의 번역 시 중 바이런의 「해적가」와 「대양」만이 최남선 아닌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바이런의 번역시와 최남선의 「바다」의 노래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아 바이런의 「바다」에서 필요한 것만을 취택했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적 특성에 자극 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 문학으로의 공리주의적 필요성에 의해 계몽문학으로 활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 바이런의 시를 김소월은 「このねむらざるひ」라는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글자는 옛글자체인 변체가나가 쓰여 있는 부분이 있고 현대 글자에 익숙해져 있는 지금 독자들에게는 판독하기 어려운 가나가 섞여 있어서 이 일본어 시를 현재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¹⁸⁾

같은 수첩에 있는 다른 일본어 시에는 창작 날짜가 적혀 있고 그 시기가 1920년이라는 것으로 보아 이 시도 1920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도 김소월이 18살 때인 1920년에 쓰여진 가능성이 큰데 그의 일본 유학시기가 1923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 일본어 실력이 훌륭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는 작품 「그리워」(창조, 5호)등을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문단에서의 창작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는데, 이 시기의 습작이나 문학적인 실험을 통해 후대의 한국 근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들이 탄생되었을 것이다.

김소월의 글자는 특유의 습성도 있고 아직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읽기 힘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당시 일본시단에서는 구어 자유시가 비교적 많이 창작되어 있었는데 당시대의 일본 시단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영향은 좀 더 전 단계의 시기의 작품들로부터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김소월의 이 시의 방법과 표현은 1890년대 후반쯤을 전후하는 시기의 일본 시단의 흐름이나 방법 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일본 시단은 『신체시초』기의 단계를 넘어서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 도이 반스이(土井晩翠), 칸바라 아리아케(蒲原有明) 등의 등장으로 로맨티시즘이 주류인 시절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신체시의 성숙기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일본에서 구의 시가 들어오면서 당시의 일본 근대 작가 들은 그것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도입하여 근대시단을 정비해가고 있었다. 이

18) 이 논문의 첫 번째 사진 자료를 참조해주시 바란다.

러한 시기와 이와 같은 시도를 소월이 주목한 것은 한국근대시가 나아갈 길을 염려하는 한국인 문학자로서의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このねむらざるひ」의 글자체나 시어, 수사법 등이 부분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この’의 ‘こ’는 좀 더 전 시대에 쓰였으리라 생각되는 한자 초서 글자체를 사용하고 있고, ‘せむ’와 같은 고어적인 표현의 사용이 보인다. ‘けらく’라는 시어에 대해서는 ‘快樂’로 보고 ‘불교영어로 종교적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¹⁹⁾ 또한 ‘~けり’라는 키레지(切れ字, 와카에서 사용되어 온 전통적 수사법)의 사용도 보인다.

지금 우리에게 김소월의 이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뿐 때문은 아니다. ‘けむりやく’라든지 ‘寒影’라는 그만의 시어의 사용²⁰⁾이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소월 모국어 창작에 있어서도 자주 보이는 현상이다.

김소월의 「잠 못 드는 태양」은 바이런의 원래 시를 그대로 적어놓은 후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것이 유고시로 발견되어 1977년 잡지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실린 것이다. 일본어 시 「このねむらざるひ」는 정식 작가로서 완성한 시작에 들어서기 전의 김소월이 도전 정신과 실험정신으로 만들어낸 일본어로의 번역 작품인 것이다.

그가 어떻게 이 시를 접하게 되었는지는 본 논문에서 가능성을 추적해보았으나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원래 가곡의 가사로 쓰여진 낭만적인 바이런의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운율의 관심을 가진 낭만시인인 김소월다운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다.

당시 한국 시단에서는 프랑스 상징주의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이 컸던데 비해 김소월은 영국 시인을 주목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한편 당시 일본

19) 사나다 히로코는 「한국근대시인의 일본어창작에 얽힌 문제들」(2002.07, 제1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요지문)에서 김소월이 ‘joy’를 이 단어로 번역했고 이는 칸바라 아리아케(蒲原有明, 1876~1952)가 그의 시 ‘잘’(1907)에서 사용한 단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0) 하야시 요코, 「김소월 일본어 번역시에 대해서」, 2013.04,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발표요지문.

시단에서 구어체 시가 주류를 이루려고 했을 때 그가 문어체를 사용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동시대인 당시 시단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좀 더 앞 시절의 신체시의 성숙기에 관심을 보였다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일본 작가들이 서양 시를 수용하기 시작한 초기의 시기부터의 과정을 주목하여 어떻게 그것을 일본의 새로운 시를 만드는데 활용하였는지, 일본 근대시단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시기를 책임지려는 한국 근대시인으로서의 자각이 커서일 것이다.

일본어 시를 보면 일본어가 미숙했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으나 김소월이 모국어 시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그만의 시어 사용이나 문법에 구애 받지 않은 특유의 자유로운 문학 스타일 등이 현대 독자들에게 어렵다는 인상을 주는 요인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외국어 시를 모국어 아닌 또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고려가요인 ‘가시리’나 예이츠의 ‘하늘의 옷감’등이 ‘진달래꽃’을 낳는데 영감을 주었듯이 김소월의 실험 정신으로 인한 초기의 여러 시도의 결과 태어난 시들이 그를 한국 대표 시인으로 만들었다. 이 바이런의 시 번역도 진취적인 그의 시작 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 끝으로 아직까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이 시를 보다 정확히 현대 일본어로 기록해두기로 한다.

このねむらぎるひ、ふざけほし！
そがひかりはおそれわななきつ
なみだぐむ、けむりやく、はるかに、
あれ、はてなき寒影しめせしを
なれはどうせ、散らすにもをよぼじ、
なれ、いみじくおもひだせしも
すてにほるびしげらくこそ如何にせむ！
さばかりすぎしときをきらめく
よそのひはあり、さてかがやくとも
ちからなきしやせんをばぬるしけれ。

夜はそがにぶきまなざしもて
みるにひたすらねずばんす、
あざやかなる、しかしとほき一
あきらかなる、しかし 噫 いかにさむし!

3. 「무제 18번」 고찰

김소월의 일본어 시인 「무제 18번」의 번역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어두운 괴로움은 가슴에 기고/ 파란 벌레는 피를 빨아요/ 아쉬움도 그리움도
버려 버릴까/ 당신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소.

당신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소/ 서글픈 몸뚱어린 꺼져도 좋소/ 당신과 함께라
면 죽어도 좋소/ 부끄러운 눈물은 말려버릴까.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기보다/ 무덤을 벗하는게 더욱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
면 죽어도 좋소/ 서글픈 내 죽음이야 물을 것 없소

-1920. 5. 4-21)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 시의 원시인 일본어 시도 제대로 잘 기록되어 있
는 자료가 없어서 여기서 먼저 제시하기로 한다.

暗き苦しみ、胸に這ひ
青き虫は血を啜る。
望も恋も捨てよかし。
君とならば死にもする。

21) 김종옥, 『정보 소월전집(하)』, 명상, 2005, 303면.

君とならば死にもする。
悲しき肉よ、滅ぶれよ。
君とならば死にもする。
卑しき涙よ、干せよかし。

人の哀れみを乞ふよりは、
墓を頼にしてよかし。
君とならば死にもする。
悲しきわれの死にまする。22)

코노는 김소월의 일본어 시에 대해 ‘生の 負的 측면으로 독자를 이끄는 시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적처럼 이 시는 대단히 암울하고 칙칙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파란 색채는 우울함이나 절망을 상징하고 ‘기다’나 ‘(피를) 빨다’나 ‘죽다’, ‘(몸뚱어리는) 꺼지다’와 같은 동사는 으스스한 느낌을 준다. 이 시가 읽는 독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신경을 거스르는 감각적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괴로움’이나 ‘벌레’, ‘몸뚱어리’, ‘무덤’이라는 어두운 이미지의 명사가 더욱 이 시의 느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데, ‘눈물’이나 ‘나’와 같은 시에 자주 쓰이는 범한 서정적인 명사에는 ‘부끄러운’이라든가 ‘서글픈’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암울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시는 형식면에서는 7. 5조의 리듬을 비교적으로 정확히 지키고 있다. 이 시에도 동반자살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위에서 사나다가 이러한 이미지를 그 당시 한국에서는 김소월이 단독적으로 사용한 특유의 모티브라고 지적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동반자살 즉 정사의 이미지는 일본 문단에서는 비교적으로 낫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情死라는 말 대신의 같은 뜻을 가진 心中(신쥬)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 원래 ‘진실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心中은 에도시대 일본에서 유곽의 유녀가 손님에게 마음을 담은 상자인 心中箱에 斷髮 등을 넣어 보내는 풍습이 있었고 심지어는 20대 후

22) 하야시요코 역, 『진달래꽃』, 靑樹社, 2011, 82면

반이 되어 은퇴할 때 손님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뜻으로 손가락을 잘라서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으로부터 생겨난 心中이라는 말이 점점 정사를 가리키게 되었고 에도시대 대표적인 문예인 浄瑠璃(조루리)의 모티브가 되어 흥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를 ‘心中物’이라고 하는데, 조루리나 가부키, 가요 등 당시 문예의 하나의 장르가 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예의 영향으로 心中 즉 정사 사건이 유행처럼 일어나게 되기도 했다.

이 풍조는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에도막부(江戸幕府)는 1722년에 心中死 단속 규칙을 정하여 징벌을 가하기도 했다. 그 후 心中은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남게 되어 근대에 와서도 일본 문학 작품 등에 적지 않아 心中에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정사는 일찍부터 세계 곳곳에 유례가 있어 일본만의 것은 아니지만, 봉건적 가족제도나 유교적 도덕관 등 정사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요소가 일본 고유의 것으로 간주되기 쉬운 점도 있고, 일본 유곽을 둘러싼 특수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일본 근대 문단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동반자살의 이미지가 한국근대 문단에서는 유난히 소월만의 특유의 모티브라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어 시 「무제 18번」과 같은 소월의 시를 읽고 필자의 머리에 즉시 떠오른 시가 있는데, 이는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 1886-1942, 이하 사쿠타로라고 함)의 『푸른 고양이』의 작품들이다. 사쿠타로는 일본근대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서 ‘일본 근대시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1917년에 첫 번째 시집인 『달을 향해 짓다』를 간행했다. 그것은 내용이나 형식면 모두 종래의 시의 개념을 깨고 구어 상징시 또한 서정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그로 인해 사쿠타로는 일본시단에서 확고한 자리에 올랐다.

시집 『푸른 고양이』는 1923년에 간행된 사쿠타로의 두 번째 시집으로 전체적 분위기가 무위와 권태의 의식으로 차 있고 우울함과 칙칙함이 짙게 깔려 있다. 『푸른 고양이』라는 한 권의 시집으로 묶이기 전에 1910년대 후반에는 이미 사쿠타로의 일본 문단에서의 위치가 확고해져 있었고 사회적 명성이 높았으므로 개개의 시들을 1920년 이전에 소월이 접했을 가능성이 전

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영향관계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풍을 가진 두 시인의 작품을 비교하므로 소월의 일본어 시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비교의 방법을 채택하는 점을 밝혀둔다.

김소월의 일본어 시 「무제 18번」에는 ‘벌레’, ‘피’, ‘몸뚱어리’(일본어 원시로는 ‘肉’), ‘무덤’과 같은 특유의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푸른 고양이』의 시어들도 ‘파리’, ‘묘지’, ‘유령’, ‘육체’, ‘죽음’ 등 어두운 이미지의 단어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 『푸른 고양이』에는 같은 시기의 일본 시단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시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그로테스크한 시 세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에 「요염한 묘지」나 「짓무르는 육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박쥐가 떼 지어 있는 들판 가운데에서/ 나는 짓물러 가는 육체 덩어리를 바라 보았다/ 그것은 초저녁에 쓸쓸하게 떨고/ 그림자에 흔들리는 사자(死者) 풀처럼 비린내 나고/ 꿈실꿈실 구더기가 가는 썩은 고기처럼 추했다./ 아아 이 그림자를 끌고 있는 경치 속에서/ 내 영혼은 근질근질한 공포를 움켜쥔다/ 그것은 항구로부터 온 배처럼 저 먼 망령이 있는 섬들을 지나왔다/ 그것은 바람도 아니다 비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애욕의 고민에 관련된 어두운 두려움이다/ 그리하여 뱀 다루는 이가 부는 둔탁한 음색에/ 나의 짓물러 가는 그림자가 슬프게 울었다.²³⁾

－ 「짓무르는 육체」 전문

사쿠타로 특유의 오싹한 시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 짓무르는 육체 전문을 인용하였다.

이 시와 김소월의 「무제 18번」에서는 유사한 이미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짓물러 가는 육체(くずれてゆく 肉体)’와 ‘몸뚱어린 꺼져도(肉よ、滅ぶれよ)’, ‘꿈실꿈실 구더기가 기는(ぞろぞろと蛆虫の這う)’ 과 ‘괴로움은 가슴에 기고(苦しみ、胸に這い)’, ‘구더기(蛆虫)’와 ‘파란 벌레(青き虫)’, ‘애욕의

23) 서재곤 역, 『우울한 고양이』, 지식올만드는지식, 2008, 92면. 이 논문에서 『푸른 고양이』 각 시의 한국어 역은 이 책에서 인용했다.

고민(愛欲のなやみ)와 ‘아쉬움도 그리움도 버려(望も恋も捨て)’와 같은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개의 시는 공통적으로 사랑과 얽힌 죽음의 이미지를 안고 있는데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감각적 자극을 주는 표현들도 대단히 많다. ‘짓무르는 육체’에서는 일단 배경부터가 ‘박쥐가 떼 지어 있는 들판’이라 섬뜩하다. 객관적인 묘사로 되어 있는 이 시는 ‘바라보다’, ‘떨다’, ‘비린내 나다’, ‘움켜쥐다’, ‘울다’처럼 시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과 관련된 시어가 쓰이고 있다. 두 시에 똑같이 쓰이고 있는 ‘기다’라는 말도 썩은 고기에 구더기가 기거나 한편으로는 가슴에 괴로움이 기는 등 유사하게 으스스한 느낌이 표현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에 관해서도 사쿠타로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죽는다는 표현은 없으나 ‘육체가 짓물러 가다’나 ‘망령이 있는 섬’, ‘짓물러가는 그림자’ 등과 같은 표현으로 죽음의 이미지가 암시되고 있다. 한편 김소월의 시에는 ‘죽어도 좋소’라는 표현의 반복으로 죽음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다. 두 시의 죽음은 ‘애욕의 고민’과 관련 있는 것도 공통적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쿠타로는 「푸른 고양이를 쓰던 무렵」이라는 산문에서 ‘민달팽이가 기어 다니는 음울한 묘지를 헤매면서 꿈속에서 죽은 애인의 유령과 밀회’를 하기도 하고 ‘육체가 자연히 사라지는 죽음의 세계와 의지가 소멸하는 열반에의 향수를’ 읊었다고 한 뒤, “나는 옛날 사람과 사랑하는 고양이와 짓무르는 것 같은 키스를 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희망과 생활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러한 허무의 버드나무 그늘에서 추억의 여자에게 기대어 응석을 부리며 요염하고도 끈적끈적하며 사음(邪淫)한 유의에 빠져 있었다. 『푸른 고양이』 한 권의 시는 사음시이고, 그 생활 전체는 비윤리적인 죄악사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서재곤은 이 ‘사음시’의 세계야말로 다른 일본 근대 시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사쿠타로만의 고유한 시 세계²⁴⁾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쿠타로의 시 「요염한 묘지」를 보면 ‘민달팽이는 울타리를 기어

24) 서재곤, 위 책, 11면.

오르고'나 '초라한 어촌의 뒷골목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그 내장은 녹아서 질퍽질퍽 비린내가 나고/슬프고 애절하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애상의 냄새다'나 '이렇게 내 생명이랑 육체는 썩어가고/(중략)/요염하고도 끈적끈적하게 축 늘어서 있는 것이예요'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1920년 당시 일본의 시단은 서구의 시들의 영향이 깊이 미치고 있었다. 사쿠타로는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들레르에 대한 애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짓무르는 육체」에 쓰여 있는 「썩은 고기(腐肉)」라는 단어에서 바로 보들레르의 『악의 꽃』의 「腐肉(charogne)」을 떠올리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보들레르의 그 시에 나오는 '시체에 모여든 구더기'나 그곳에서 나는 악취의 이미지도 사쿠타로의 이 시에서 똑같이 표현되고 있다.

미요시 다즈지(三好 達治)는 사쿠타로가 보들레르 등을 원시로 읽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²⁵⁾ 1913년에 발간된 나가이 카후의 번역 시집인 『산호집』에서 이 「썩은 고기」를 읽은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소월의 경우도 『태서문예신보』를 통해 김억이 1918년부터 계속해서 프랑스상징주의 시론이나 시들을 소개해오고 있었지만 그 비중이 베를레르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김억이 관심을 가진 내용이 주로 선이 가늘고 여린 애상에 있었다는 점 등과 김억의 『오뇌의 무도』가 1921년에 발간된 것을 감안한다면 『산호집』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들레르를 접한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김소월의 일본어 시에 나타나는 암울한 분위기, 특히 사쿠타로가 '사음시'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분위기는 특히 「여자의 냄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신기할 정도로 사쿠타로의 「요염한 묘지」와 통하는 부분이 많다.

'땀 냄새', '때 묻은 냄새' '보드라운 그리운 어떤 목숨의/ 조그마한 푸릇한 그무려진 靈/ 어우러져 비끼는 살의 아우성.....', '葬事 지나간 숲속엔 냄새', '幽靈 실은 널뛰는 뱀갓엔 냄새', '생고기의 바다의 냄새' 등 이러한 시적 표현들은 사쿠타로가 말하는 '추억의 여자에게 기대어 응석을 부리며 요염하고도 끈적끈적하여 사음한 유희'에 빠져 있는 이미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25) 『無限』誌, 1962년 동계호, 書肆田高, 특집 「하기와라 사쿠타로」, 177면.

김소월	하기와라 사쿠타로
여자의 냄새	요염한 묘지
푸른 구름의 옷 입은 달의 냄새. 붉은 구름의 옷 입은 해의 냄새.	주홍색의 고귀한 의상을 입고 해매는 사람이여
아니, 땀 냄새, 때 묻은 냄새, 비에 맞아 추겨운 살과 옷 냄새.	그대가 해매는 몸의 그림자로부터 초라한 어촌의 뒷골목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 그 내장은 녹아서 질퍽질퍽 비린내가 나고
조금마한 푸릇한 그무러진 靈	그리하여 쓸쓸한 듯한 망령이여
葬事	墓場
유령 실은 날뛰는 뱃간엿 냄새. 생고기의 바다의 냄새.	미지근한 바닷물 냄새가 풍겨온다.
늦은 봄	이 봄날 저녁

위의 두 시는 표에서도 정리했듯이 후각 중 특히 비린내를 앞세우고 있는 점이나 봄이라는 계절, 옷을 입는 이미지, 죽음 이미지 등 공통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김소월의 「여자의 냄새」와 같은 시는 소월의 ‘사음시’적 시풍이 일본어 시 습작기를 거쳐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소월의 무제 18번에서 보이는 허무는 시어에 쓰이고 있는 ‘무담’이나 ‘죽음’이라는 시어나 ‘괴로움이 긴다’라거나 ‘벌레가 피를 빨다’와 같은 오싹한 감각적 이미지와 어울려져 있다는 점에서 사쿠타로 시의 허무와 공통적인 느낌을 독자들에게 갖게 한다.

4. 결어

본고에서는 김소월의 일본어 시 7편 중 「このねむらざるひ」와 「무제 18번」의 두 편의 시를 다루었다. 「このねむらざるひ」는 당초에는 김소월의 영어 창작시 번역판으로 생각되어졌으나 바이런의 영어 시를 그대로 적어

놓고 그 다음으로 일본어로 번역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서양 시인의 외국어 시를 또 다른 외국어인 일본어로 번역한 시도는 일본 시인들이 『신체시초』를 통해 근대시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서 보이는 방법과 유사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의 방법으로 찾으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신체시초』의 시인들은 서양시를 한시로 또는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하는 실험을 통해 일본 근대시를 확립해갔다. 김소월의 새로운 도전으로 탄생한 일본어 창작시는 한국 근대시단 확립시기의 위대한 실험정신의 실천으로 크게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무제 18번은 그 당시 일본에서 하기와라 사쿠타로가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고 독자적인 시 세계를 전개했듯이 김소월의 경우에도 어둡고 칙칙한 감각적인 시의 이미지는 당시 한국 시단에서도 그만의 특유의 세계이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김소월의 그러한 특징을 잘 살펴보기 위해 사쿠타로의 이미지와 유사한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소월의 자유로운 정신과 모험적 도전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인 『진달래꽃』이 탄생하였는데, 그 시 중에는 부도덕해 보이고 요염하고 문란한 분위기의 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에는 일본 근대시단의 거장인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시 세계와 통하는 것이 있었다.

[ABSTRACT]

A Study of Kim Sowol's Japanese Poetry

Kim Sowol is a great literary figures of modern Korea. Kim Sowol wrote seven poems in Japanese. This is the thesis of his two Japanese poetry. 'Sun Of The Sleepless' and 'Untitled 19 '.

'Sun Of The Sleepless' is a poem by George Gordon Lord Byron. Sowol has translated this poem in Japanese.

'Untitled 19' is a grotesque poem with a very depressing atmosphere. The words of the poem is similar to Baudlaire's poetry. Sakutaro also wrote of gloomy poem during the same period. Sakutaro is called the father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Kim Sowol tried to make his own unique literary atmosphere. These efforts have made him a great poet.

Key words : Kim Sowol, poems in Japanese, George Gordon Lord Byron, translation, challenge mind, Hagiwara Sakutaro, Baudlaire

참고문헌

□ 단행본

김종옥, 『원본 소월 전집(하)』 홍성사, 1982. 20-21면.

김종옥, 『정본 소월전집(하)』 명상, 2005, 303면.

서재곤 역, 『우울한 고양이』,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11면, 92면.

송희복, 「안서 김억의 역시에 나타난 모국어 감각」, 국제언어문학 20호, 2009, 3면

정한모, 『한국 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82.

伊藤信吉외, 『일본의 시가28 역사집』, 중앙공론사, 1969. 5-6면.

林陽子 역, 『진달래꽃』, 靑樹社, 2011, 82면.

□ 논문 및 평론

林陽子, 「김소월 일본어 번역시에 대해서」,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발표요지문, 2013.04.

眞田博子, 「한국근대시인의 일본어창작에 얽힌 문제들」, 제1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요지문, 2007.07.

鴻野映二, 「소월·일본어작품 유형연구」, 국제대학교논문집vol.10, 1982.

『無限』誌, 1962년 동계호, 특집 「하기와라 사쿠타로」, 177면.

이 논문은 2016년 03월 14일 접수되어 04월 11일까지 심사받아 04월 15일 게재 확정됨.